

01 교회소식

교회 개척 32주년 맞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눔으로 어 느덧 세계적인 초대형 교회가 된 만민의 역사를 소개한다.

02 생명의 말씀

노아 홍수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인간 경작의 섭리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노아시대의 홍수 심 판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03 간증

이스라엘을 깨우신 하나님

3년 동안 진행된 이재록 목사의 선교를 통해 사랑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엘리야브 레빈 목사 간증.

04 특집

“세계를 이루라”

문서 선교, GCN 방송, WCDN 등은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구 원하며 세계 교구화를 가능케 한 성령의 역사의 도구들이다.

만민뉴스

제644호 2014년 7월 2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태양이 작열할 때 개척하라”

오직 순종함으로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큰 결실 일궈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참뜻을 알고자 산에 올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사랑의 내 아버지,
이 말씀이 내게 없었으면
어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었으며
내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었겠나이까?

이 말씀이 내 지침서이며
나를 아버지와 묶으시는 끈이 나이다.
많은 믿는 자들이 있사운데
아버지의 참뜻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버지의 깊으신 마음을 풀 자가 없나이다.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깊으신 뜻을 밝히 알려 주사
저의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하시며,
아버지의 숨기신 성경상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을 전하기 원하오며
많은 사람이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고
참으로 믿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주여,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산에 올라 무릎을 꿇었사운데
왜 이리 아버지가, 내 주가 보고 싶은지요.
눈에 눈물이 흘러 마르지 않으니
내 아버지의 품에 안긴 듯 내 주의 품에 안긴 듯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내 아버지,
내 안에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그리움이 끝이 없나이다.

교회 개척 당시
성경 66권 말씀을 밝히 깨우쳐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금식하고 기도하며
산상기도 다닐 때의 고백

교회 개척 32주년을 맞아 초대교회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 이 나타나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행 2:43-47), 더 나아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계 3:7-13) 축복하신 삼위일 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만민중앙교회는 1982년 7월 25일, 10여 평의 성전에서 어 린이 4명을 포함한 13명의 성도가 개척예배를 드렸다. 이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1만여 지·협력교회 와 함께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받은 핍박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개척 5년 만에 3천 명의 교 인이 등록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단과 나라의 핍박을 통해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발판이 마련됐다.

1991년 7월,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총회를 형성했고 이 재록 목사는 교계의 사랑을 받으며 '92 세계 성령화대성회 공동대회장,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 희년대회 실무대회 장 등 교계 행사에서 일익을 감당해 왔다. 1993년에는 미국 '크리스천 월드'지에서 세계 50대 교회로 발표됐다.

그러나 1998년부터 시작된 교회적인 세 차례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교회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갖추게 하셨다. 그리하여 2000년부터 제2도 약기를 맞아 세계 선교의 비전이 더욱 구체화됐다.

CNN에 보도된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 일본, 파 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 고민주공화국, 미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 각국의 요청 으로 대형 성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성회 장소가 봉쇄된 파키스탄, 강제개종금지 법령이 공포된 인도, 유대교 나라 이스라엘 등 어떤 난관 앞에서도 선교팀은 하나님께서 주 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순교의 믿음으로 행 군했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제3도약기에는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쓰는 만민의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 살렘 성의 주인공들로 나올 수 있도록 급속한 영의 흐름을 허락하셨다. 또한 전 세계 72억 명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영의 평준화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성전 건축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

특히 교회 개척 30주년에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또 다 른 개척, 새로운 시작'이라 말씀하시며 앞으로 나타날 재창 조의 역사, 대반전의 역사가 예전과 비할 수 없는 영광으로 펼쳐질 것을 알려 주셨기에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 이할 수 있는 '대성전 건축'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노아 홍수에 담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최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으로 인해 수 백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폭우가 내리쳐며 거센 풍랑 이는 바다에서도 안전했지요. 이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 주신 설계의 비율대로 건조됐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규모는 길이 약 150미터, 너비 약 25미터, 높이 약 15미터이며(창 6:15), 길이 150미터는 너비의 6배, 높이의 10배입니다. (너비 × 6) = 길이 = (높이 × 10) 이 비율은 근대의 선박공학자들이 알아낸 대형선박 안전 표준 설계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하지요.

영적으로 '방주'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만 거한다면 어떤 시련이 몰려와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1.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7장부터는 대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기 전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지요.

그 당시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기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노아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물론, 그의 가족도 함께 구원받은 축복을 받았지요. 또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음으로 받은 축복이 또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지구를 두르고 있던 창조의 근본의 빛이 완전히 거두어졌지만 노아는 여전히 그 빛으로 돌린 공간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중에도 노아의 방주를 근본의 빛으로 돌려 주셨지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

주에 더 태워야 할 짐승의 종류와 수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 하신 것은 ‘그 생물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종족 보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운 것입

작을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지요. 또한 노아처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음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2. '칠일'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 공의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부터 칠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홍수 심판

시간을 주셨습니다. 완전수인 7만큼의 날을 더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칠일은 누군가 돌이켜 구원의 방주에 탈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셨음에도 이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칠일'이란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홍수 심판을 이루시기까지 공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것을 따져보셨고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셨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두루 살피시며 철저히 점검하셨는지를 나타냅니다.

한편,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 편에서도 홍수 심판을 위한 대비가 전혀 부족됨 없이 어떤 실수도 없이 이뤄졌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에스겔 18장 23절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 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성경을 보면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그중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자가 있는지 살피셨고, 최후의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도 친히 천사장들을 보내어 그 성읍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급박한 상황에서도 심판을 늦추셨지요.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이지요. 앗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 공의로는 멸망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게 하셨지요. 이는 심판

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택하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근본의 소리에 이끌려 방주로 나오도록 역사하셨지요. 그런데 창세기 7장 2~3절에서는 특정 동물들을 지명해 암수 일곱씩 또는 암수 둘씩을 태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더 태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노아가 택해 취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인간 경

이 앞으로 '칠일' 후에 일어난다는 뜻이지요. 역으로 심판의 순간까지 아직 '칠일'이 남아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결국 홍수 심판에 이르고 말았지요. 심판을 취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칠일'이라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종족 보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우되 특정 동물들을 지명해 암수 일곱씩 또는 암수 둘씩을 더 태우게 하셨지요.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더 태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노아가 택해 취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인간 경작을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지요.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창세기 7:1~5)

의 선포와 함께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킬 시간,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킬 시간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지요. 다행히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왕을 비롯해 모든 신하와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고 내리려했던 심판을 거두기도 하십니다. 노아의 때 홍수 심판 전에 주신 7일이라는 유예 기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방주로 나오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때 중요한 것은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선택 받은 짐승 모두를 방주 안에 들어가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게 하셨지요. 따라서 그 7일 동안 노아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고 외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7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더 이상 심판을 경고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노아로 하여금 왜 마지막 순간까지 방주의 문을 열어 놓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문을 닫게 하신 것일까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인간 경작의 섭리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축소판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매” 하셨지

요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안 때로부터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비난했지요.

‘인자의 때’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통해 때가 임박함을 부지런히 알려 주십니다. 이런 외침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죄를 회개하는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가 세상에 취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대시하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때가 되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휴거돼 7년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요.

반면 이 땅에는 7년 대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아예 주님을 믿지 않았거나 믿는다고 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전혀 갖지 못한 경우이지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휴거 사건을 보고 정신을 차리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제야 성경이 참임을 깨닫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지요. 이런 이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어떤 고문과 위협을 받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도 이미 거두어졌기에 순전히 자신의 의지로 신앙을 지켜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구원받을 이들이 있음을 아시기에 7년 환난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공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지요.

홍수 심판 전 7일의 유예 기간이 바로 ‘7년 환난’의 의미와 같습니다. 홍수 심판 7일 전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7년 혼인 잔치에 들어간 것과 같지요. 또한 7년 환난 기간에 이사줍기 구원이 있듯이 방주의 문이 닫혔다 해도 홍수 시작 전 누구라도 문을 두드리면 열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 누구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아켜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7년 환난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면 대부분이 배교를 하지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인간 경작의 마지막 때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노아 말을 듣고 함께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만일 노아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노아가 전한 말을 듣고 믿으므로 방주 안에 들어오려 했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하고 막으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구만 구원받겠다고 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열심히 전했으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므로 노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듣고서도 무시해 버렸지요. 그 결과,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만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나오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도 많지요. 입술로는 “믿습니다.” 고 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 취하는 사람은 사실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진정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방주 안 곧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행함을 보일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구원의 방주를 타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깨어났습니다”

엘리아브 레빈 목사 (이스라엘 벡산생영교회)

저는 유대인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16세 때부터 마피아(강력한 범죄 조직)에 빠져 생활했으나 20세 되던 2000년, 주님을 영접하면서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술, 마약 등을 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해 저는 가족이 있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180도 변화된 저를 보고 가족 모두 주님을 영접했지요.

이스라엘 나사렛 생영교회(담임 세르게이 보차르 니코프 목사)에서 신앙 생활을 하던 저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부교역자로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던 2004년 10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로 ‘2004 이재록 목사 초청 독일 연합대성회’를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기독교 역사상 최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선포된 강사 이재록 목사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성령의 권능’ 등 생명력 있는 말씀들은 제 영혼을 깨웠고 마음에는 희열이 넘쳤습니다. 이어 강사의 환자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며, 휠체어와 목발 없이도 걷는 등 말씀을 확증하는 하나님 권능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웠지요.

저는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그분이 인도하는 해외 연합대성회는 어디든 참석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렸지요. 2007년 7월부터 3년간 이재록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선교를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인도하시는 집회마다 참석하며 저는 이 목사의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재록 목사님의 이스라엘 선교 첫 집회 때 저의 할머니가 고혈압과 만성두통을 치료받는 행복한 일도 있었지요.

이러한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 된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크리스탈포럼이라는 단체를 결성했고, 이재록 목사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힘차게 사역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중심부 예루살렘 ICC에서 개최된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는 이스라엘 개신교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담임하는 벡산생영교회는 주변에 정통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깨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8 2014 August
07.27-08.02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천국 21-24
- 죄의 뿌리와 성결 2
- 요한계시록 강해 22
- 사랑장 7-10
- 창세기 강해 114
- 일곱교회 1-2
-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 신뢰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 목자와 하나
- 마음발을 개간하자 6-7
- 치료와 응답의 공의 1-2

GCN TV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9 (이수진 목사)
- 눈물의 열매 1 (이미경 목사)
- 생명의 6 (신동호 목사)
- 영의세계 7-8 (이희선 목사)
- MIS강의 14 / 섬세하신 하나님 (정구영 목사)
- 게으름 (김수정 목사)
- 변함없는 사랑 (천우진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8
- 옛날 옛적에 5-6
- 모두 드려요 12
- 흥겨운 소리 7
- English 11
- 만민치킴이 3
- 알콩달콩 어버버 울동 5-6
- 찬양 드려요 12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0
- 황기 11
- 뷰티풀 라이프 5
- 플로리스트 14

해외성회 및 교육

- 에스토니아 연합대성회 2
- 화상 12
- 2013 기관장 교육 1-2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전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매우 잘 알기에
 만민중앙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을 강조하는 오중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 개척 때부터 매우 큰 비전을 주셨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쉽 없이 기도했다.
 그 결과 책자, 신문, 방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약과 힘찬 전진을 하고 있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개척, 새로운 시작

·GCN 방송·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송출되는 순수기독교복음방송, GCN 방송은 생명의 말씀과 성경이 침입을 입증하는 권능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 간증, 교양, 문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24시간 방송하고 있다.

이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환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 권능을 체험했다는 간증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게 됐다는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한 방송 선교의 비전을 받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재정이나 전문 인력 부족 등 현실의 어려움을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GCN 방송을 시작했다.

2005년 9월 1일,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송출실에서 첫 전파를 쏘아올린 GCN 방송은 그해 10월 10일에는 정식 개

국해 시청자들을 찾아갔다. 이후 TBN 러시아, 엔라쎬, CNL, 홀리갓 TV 등 세계 유수 방송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공중파, 위성, 케이블 매체를 통해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다. 한편 GCN 방송 홈페이지(www.gcntv.org)와 스마트폰(m.gcntv.org)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문서 선교· 신앙의 핵심적 말씀을 다룬 '십자가의 도'를 비롯, 우림북(www.urimbooks.com)을 통해 발간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90여 권의 한국어 책자와 57개 언어로 발간된 300권의 다국어 신앙서적은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영적 지침서가 되고 있다. 독자들

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믿음에 대한 확신, 천국 소망이 넘치고 심령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이재록 목사는 개척 전부터 성경 66권 말씀을 풀이받고자 무수한 금식과 불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를 통해 얻은 보화와 같은 생명의 양식이 설교집과 방송설교집, 주제설교 모음, 장년 및 아동·학생 공과교재, 성도간증집, 칼럼모음, 신앙에세이 등 모든 저서에 담겨 있다.

그의 저서는 미국 카리스마 미디어, 이탈리아 이반젤리스타 미디어, 대만 천은 등 해외 우수 출판사와 미국 아마존닷컴, 우크라이나 뉴앤베스트, 레바논 안토인 서점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출판·유통되고 있다. 또 47개 언어로 발간된 315종의 전자책도 아마존닷컴, iBookstore, 구글 플레이 북스토어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WCDN·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WCDN (www.wcdn.org)은 하나님 권능을 통한 무수한 치료 사례를 각종 의학 자료로 규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성경이 침입을 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인도, 호주, 필리핀, 이탈리아, 노르웨이, 멕시코, 불가리아 등 매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성과 의학'이라는 주제로 국제 기독교학 콘퍼런스를 개최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식인들을 깨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하나님을 찾고 믿으려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믿는 이들마저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요즘 세태다. 이를 안타까워 하던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성경이 침입을 의학으로 입증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2004년 2월, WCDN을 설립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WCDN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전 세계 곳곳에 19개 지부를 두고 활발한 지부 활동을 통해 전 세계 기독 의사들을 하나로 연결하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뤄가고 있다.

·예능위원회·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는 예배는 물론, 해외 연합대성회와 목회자 세미나, 손수건 집회(행 19:11~12) 시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운 찬양과 무용으로 국내외 수많은 영혼에게 천상의 향기를 선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2009년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만민찬양(신 31:19, 22)을 통해 예능위원회의 아름다운 향이 승해졌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결한 마음에 실력까지 겸비돼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며 신앙생활의 행복을 더해 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

예능위원회에는 현재 임마누엘, 살롬, 나사렛, 흰돌, 금빛 5개 성가대가 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찬양 전문 닷시오케스트라와 찬양의소리선교단, 찬양의무용팀, 파워워십팀,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탈싱어즈, 새렘국악선교단, 금관양상방 등 찬양과 무용, 연주 분야의 25개 예능팀과 솔리스트로 구성돼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만민앨범 1집 '목자의 마음', 2집 '헌신', 3집 '천국', 4집 '소망', 5집 '공간'을 제작했다.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흥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손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238,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성시 성북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결로 16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